

# 자율성·재정 지원 담은 특별법 통과 없인 설립 ‘흔들’

한전공대 특별법 무슨 내용 담았나

특수법인 대학 독립적 지위 부여

시설·설비·교원 특례규정 담아

소관 부처 교육부 아닌 산업부

법인 설립후 2년 가까이 제자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은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정상 개교와 지속 가능한 학교 발전을 위한 법률안이다.

사립학교가 아닌 특수법인 대학이라는 독립적 지위를 부여해 대학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시설·설비·교원 등 대학 설립에 관한 특례 규정을 삽입, 개교 목표 시일까지 촉박한 일정에도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공대법, 자율성 및 재정지원 근거 담아 = 14일 한전공대 특별법안의 주요 특징은 신설되는 한전공대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부·지자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시설·설비·교원 등 설립 특례 규정을 통해 고등교육법 등이 정한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우선 한전공대는 이 법률에 근거한 특수법인 대학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국립·공립·사립학교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법인 형태의 대학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대와 달리 특별법을 우선 적용받는 특수법인 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적 지위를 부여해 학교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한국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 4개교와 유사한 형태다. 소관 부처(관할청)는 교육부 장관이 아닌 산업부 장관으로 했다. 대학 지원과 육성 주체는 산업부장관 및 한국전력이라고 명문화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담고 있다. 사립학교와 달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대학의 시설, 설비, 연구, 운영 등에 드는 경비에 총당하도록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학에 무상양여, 사용허가, 대부 가능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 역시 사립학교 형태로 대학을 설립할 경우 불가능한 지원이다.

학위 과정, 교수 임면, 학생 선발 등 대학 운영 과정에서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점도 특징이다. 교원 임면은 정관에 따라 총장의 권한으로 했다. 학위 과정 설치와 학생 선발은 대통령령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산업부·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현시점에서 주목받는 대목은 부칙 제3조다.

한국에너지공대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는 설립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고등교육법 제4조 등이 규정한 시설·설비를 갖춘 시점에 대학 설립이 가능하므로, 교사(校舍) 확보가 기준에 미달한 한전공대의 경우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 해당 규정이 담긴 특별법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2020년 4월 학교법인 설립 허가 후 진전 없어 =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됐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도시첨단단지 중심으로 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공대 설립을 내용으로 한 지역공약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경운영 5개년 계획'에서 한전공대 설립 과제를 채택했다. 2018년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한전공대설립지원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설립지원위원회는 2019년 7월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같은 해 8월 2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특별법(한전공대법) 제정, 정부 지원사업 추진(최소한 지자체 지원 수준의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한국전력은 대학 설립 이전 단계인 학교법인 설립을 위해 2019년 9월 학교법인 창립총회를 거쳐 교육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했다. 2020년 4월 17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한전공대의 설립을 허가했다.

신정훈(나주·화순) 의원 등 51명의 의원은 학교법인을 통해 대학을 설립할 경우, 일반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한전공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빛가람동 부영골프장 및 인근 농경지 120만㎡에 설립한다. 정식 명칭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다. 대학부지 40만㎡(교사 14만㎡), 연구소 및 클러스터 부지 80만㎡이다.

2025년 전학년 편제 완성 시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이다. 교수 100명, 직원 100명이다. 에너지공학과 단일 학부다.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289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지 조성비, 건설비, 인프라 도입비 등 설립비 6210억원은 한국전력이 부담한다. 연간 641억원의 운영비는 한전과 정부, 지자체 등이 부담한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연 100억원씩 10년간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한전공대 운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 34조(기금의 사용)는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 부지 40만㎡는 (주)부영주택이 2020년 4월 20일 '무상기부'했다.

학교법인 측은 지난해 말까지 에너지인공지능, 신소재 분야 교수 7명을 채용했으며, 오는 5월 개교 핵심 시설(4000㎡) 우선 착공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이어 오는 7월에는 본관동(3만㎡) 착공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k@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신임 국무위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임명장을 받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집합금지·영업제한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새로운 거리두기)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이라며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 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포함해 방역 수칙 이행 주체인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새 거리두기에 대해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며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윈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계속 부담을 지을 수는 없다”며 “방역과 민생이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일용직이 차지했다”며 “여성과 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반등세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예정된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이재명 독주 속 민주당 대선 경선 연기론 돌출…“두 달 미루자”

친문 일각 제기…후위주자들 찬성

이재명측 “일정 흔들면 내전” 반발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주 체제를 구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경선 연기론은 현행 당헌상 ‘대선 180일 전’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규정을 ‘대선 120일 전’ 정도로 늦추자는 주장으로,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다른 후위 주자 진영에서도 내심 경선 연기를 바라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미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이 지사 측은 “유불리에 따른 판 흔들기”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친문 핵심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4월 보궐선거와 5월 전당대회,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2~3개월의

대선 준비기간이 없어졌다”며 “대선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당내 컨센서스를 모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9월 초에 경선을 완료해 당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데 준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데다 야당보다 후보를 일찍 뽑아 미리부터 공격에 노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지사 외의 다른 대권주자 진영에서도 경선 연기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 의원은 “야당은 4개월 전에 후보를 뽑는데 우리만 6개월 전에 후보를 뽑아 놓으면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 야당의 표적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선 3~4개월 전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런 경선 연기론의 이면에는 1강인 이 지사를 따라잡을 시간이 필요한 주자들의 셈법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친문 진영의 목

소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선 레이스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당장 이 지사 측은 “공부 많았으니 시험 날짜를 미루자는 것”이라며 경선 연기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유불리에 따라 사육으로 경선 일정을 흔드는 순간 내전”이라며 “이 판을 흔들어서 정권 재창출이 안됐을 때 정치적 후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경선 연기론에 대해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선 연기론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단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광은 사무총장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경선 연기론에 대해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며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단 경선 연기론이 접화된 만큼 앞으로 여권 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